

‘현대’ 구축과 민족문학 담론 형성*

— 《小說月報》의 “被損害民族的文學號”를 중심으로

金美榮**

<목 차>

1. 번역된 ‘현대’
2. 被損害民族文學과 민족문학
3. ‘현대’ 인식과 민족·민족문학의 호명
4. ‘현대’ 기획과 동원된 민족문학

1. 번역된 ‘현대’

옛 것(舊)은 거의 모두가 전근대적 악습과 폐습으로 상정되면서, 그것과의 단절이 중국 근대 변혁의 핵심을 이루었다. 중국 지식인들은 옛 것을 뿌리부터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새로움(新)에 있다고 믿었다. 만청 시기부터 이미 ‘새로운 것’이 수많은 문학과 비문학의 출판물들에서 특수한 가치 관념으로 사용되었다.1) 과거라는 옛 시간에서 벗어나, 옛 것과 구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필요했다. 1920년대에 일본어 ‘지다이(時代)’에서 온 ‘시대’, ‘신시대’라는 명사가 널리 유행하였고, ‘현대’2)라는 개념이 널리 쓰인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

* 이 연구성과는 2016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高麗大學校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1) 王暉, 張頌武 주편, <我們如何成爲現代的>, 《現代性中國》,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30쪽.

2) 본고에서 ‘현대’는 아직 획득하지 못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에서 이해할 수 있다.³⁾ 인위적으로 나눈다고 하여도 본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시간이다. 하지만 신해혁명, 5·4 운동 등 각성과 각오에 기반을 둔 역사적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으로 인하여 중국의 시간은 '현대'로 구획되기 시작했다. 직선적인 시간 관념 속에서 '과거'는 낡은 것과 동일한 개념을 이루었고, '현대'는 새로움을 상징하는 특수한 가치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현대'는 중국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대'를 채우고 있는 내용은 서구에서 들여온 것이 대부분이었고, 새로움은 곧 서구의 것으로 여겨졌다. 예술 사조와 문학 사상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소설월보 小說月報》⁴⁾는 1910년 창간 이래, 중국 현대소설 추구라는 측면에서 외국문학을 번역·소개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921년, 마오둔(茅盾)이 주편을 맡은 이후의 《소설월보》는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잡지가 담아냈던 '현대'의 모습에 변화가 가해졌다. 초기 《소설월보》가 소개하는 서구 문학은 문언문으로 번역된 통속소설 위주였다. 해외소식을 소개하는 지면에도 “런던 연극 관람기(倫敦觀劇記)”,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巴黎最有名的女優)” 등 흥미 위주의 기사가 많이 실렸다.⁵⁾ 초기 《소설월보》가 동시대의 서구를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5·4 신문화 운동 과정을 거치며 중국의 '새로운 현대'를 그리려고 했던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이미 보수적이며 '오래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인들이 동시대 유럽 여러 국가가 이미 진입했다고 믿고 있었던 현대성을 '현대'라고 사용하였다. 반면 당시 중국을 일반적인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편의를 위하여 '근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 3) 리어우관, 장동천 외 옮김, 《상하이 모던》,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97쪽.
- 4) 1910년부터 1931년까지 상하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간행한 월간 잡지. 1910년 창간된 이후, 주로 린슈(林紓)의 번역 소설 등 구소설을 게재하며 원앙호접파(鴛鴦胡蝶派)의 주요 활동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1921년 제12권부터 마오둔(선엔빙(沈雁冰)이라는 필명으로도 게재, 본고에서는 이후 모두 마오둔으로 통일)이 주편을 맡으면서 구어체로 된 신소설 및 해외의 문학 이론, 비평 등을 주로 게재하면서 문학전문 잡지로의 명성을 떨쳤다. 마오둔 이후 정진뒤(鄭振鐸)가 주편을 이어갔고, 예사오권(葉紹鈞)·저우쥘런(周作人)·루쉰(魯迅) 등 문학연구회 성원들이 《소설월보》에 번역물과 창작물을 게재하였으며, 라오서(老舍)·빠진(巴金)·딩링(丁玲) 등의 신인이 배출되었다.
- 5) 高志强, 《〈小說月報〉(1921-1931)翻譯文學初探》, 北京語言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7, 20쪽.

한편, 마오둔이 주편을 잡은 12권 1호부터 《소설월보》는 구체적으로 해외 문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문단 소식(海外文壇消息)”, “현대 문단 잡화(現代文壇雜誌)” 등의 코너가 신설되어 최근 해외 문학의 동향, 해외 문학 유과, 노벨 문학상 수상작 등 동시대 세계 문학을 번역·소개하였다.⁶⁾ 마오둔은 12권 2호의 <신문학 연구자의 책임과 노력 新文學研究者的責任與努力>에서 적극적으로 서구 문학을 소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의 현대 사상”을 소개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중국이 이루려고 하는 ‘현대’의 모습이 서양 문학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했다.

서양 문학을 소개하는 목적 가운데 절반은 그들의 문학 예술을 소개하는 데 있다. 나머지 절반은 세계의 현대 사상을 소개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목적이다.⁷⁾

1921년부터 1931년까지 《소설월보》는 총 39개국, 304명의 작가, 804편의 작품을 번역·소개했다. 매호 평균 8편의 외국 작품을 번역한 셈이다. 번역의 범위는 전 세계를 아울렀다. 서유럽·북유럽·남유럽의 스페인 지배 국가·라틴 아메리카·동유럽의 약소국가의 문학 모두 《소설월보》의 게재 범위 안에 포함됐다.

또한 4번의 특집호가 출판되었는데, “피억압 민족의 문학(被損害民族的文學)”(12권 10호)·“중국 문학 연구(中國文學研究)”(17권 증보판)·“소련 문학 연구(俄國文學研究)”(12권 증보판)·“프랑스 문학 연구(法國文學研究)”(15권 증보판)가 그것이다. 《소설월보》의 편집진이 마련한 4차례의 특집호에는 마르크스주의·자연주의·신낭만주의 등 그들이 그리고자 했던 ‘현대’ 혹은 ‘현대문학’의 모습이 투영돼 있었다.⁸⁾ 여기서 눈여겨볼 만 한 점은 《소설월보》

6) 高志强, <現代性張力結構與多重對話格局>, 《天津社會科學》 6期, 2010, 112쪽.

7) 介紹西洋文學的目的, 一半個是介紹他們的文學藝術來, 一半也爲是欲介紹世界的現代思想 - 而且這應是更注意些的目的的. 茅盾, <新文學研究者的責任與努力>, 《小說月報》 第12卷 第2號, 1921, 2쪽.

8) 심태식, <Mao Dun's Literary Advocacy in the Early 1920s>, 《中國學論叢》 제27집, 2010 참고.

의 편집진이 10월 혁명으로 사회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소련이 나 사회 및 문학 방면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유럽 프랑스의 문학을 집중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방에서 주변으로 머물러있던 피억압 민족의 문학에도 천착했다는 것이다. 즉, 동시대 세계의 흐름 속에서 강권을 가지고 '현대'의 시간 좌표 위에 있는 나라의 문학에서만 아니라 피억압 민족의 문학에서도 "현대 사상"이 존재했다는 명제를 만날 수 있다.

2. 被損害民族的文學과 민족문학

“폴란드는 없어졌고 인도는 망했다네. 유대의 유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네.”⁹⁾라는 구절은 개혁가 장즈동(張之洞)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학당가 學堂歌」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망한 나라를 중국에 견줄으로써, 망국의 국민을 동정하는 동시에 그들의 국민성을 꾸짖는 어조도 담겨있다. 루쉰(魯迅)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불렸던 「학당가」 및 「군가 軍歌」를 두고,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중국 대도시의 큰길을 걷다보면, 군인들이 켜 걸음으로 저자거리를 지나며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그 내용은 인도와 폴란드의 노예 근성을 통렬히 꾸짖는 것이다. …… 대개 중국은 오늘날에 와서 예전에 누리던 영광을 들추어내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바가 없기에, 이쪽의 이웃은 노예가 되었고 저쪽의 이웃은 죽어버렸다는 식으로 망해버린 나라를 골라 비교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나은 처지를 드러내길 바란다.¹⁰⁾

루쉰은 다른 나라의 역사적 고통을 연민하는 식으로 중국의 독자성을 과시

9) 波瀾滅, 印度亡, 猶太遺民散四方. 리디아 리우, 민정기 옮김,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69쪽 재인용.

10) 魯迅, 《魯迅全集》 1: 리디아 리우, 위의 책 69-69쪽 재인용.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어떤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는데, 또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더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에게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라는 당대의 ‘현대적’ 관점에서, 지배하려는 힘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분투 사이에 존재하는 장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의 발행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학당가」 및 「군가」에서 언급되었던 나라들을 똑같이 호명하며, 그들의 슬픔을 연민하고 중국의 상황을 자위하는 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는 마오둔이 쓴 <전언(引言)>과 <신유태 문학 개관 新猶太文學概觀> 2편을 제외한 27편의 논문·소설·시가 모두 번역문으로 구성되었다. 논문으로는 폴란드·체코·세르비아·핀란드·신유태 등의 나라와 관련된 글 7편이 실렸는데, 저우쥘런(周作人)·탕스(唐侯)¹¹⁾·션저민(沈澤民)·마오둔 등이 번역하였다. 소설은 총 10편이 번역되었는데, 논문을 번역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폴란드·그리스·불가리아·우크라이나·체코·세르비아 등의 소설을 번역했다. <소수민족 시 번역 雜役小數民族詩>이라는 소제목 아래 번역된 10편의 시는 모두 마오둔이 번역하였다. 총 187쪽에 이르는 적지 않은 분량의 특집호 가운데 2편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번역문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1921년 이후, 《소설월보》에 평균적으로 게재된 번역문이 8편 내외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 실린 27편의 번역문은 특히 많은 분량이었다.

테리다가 말했던 것처럼 번역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투명하며 명백한 번역 가능성의 지평 위에서” 언어 간 의미를 전이하는 행위가 아니다.¹²⁾ 번역자는 번역 주체의 언어와 대상 언어 사이에서 기표의 전달만을 목적으로 번역에 임하지 않는다. 더구나 마오둔과 같이 주편을 맡으며 특집호를 꾸리는 사람이

11) 루쉰(魯迅)은 <근대 체코 문학 개관 近代捷克文學概觀>·<소러시아 문학 약술 小俄羅斯文學略述> 등 총 2편의 논문을 번역하였는데, 같은 호에 실린 소설 번역문에는 “루쉰”이라는 필명을 썼던 반면 논문 번역에서는 “탕스(唐侯)”라는 필명을 썼다.

12) 자크 테리다, 박성창 옮김, 《입장들》, 숲, 1992, 66쪽.

동시에 번역자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그의 번역 행위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¹³⁾ 번역은 작품의 선별부터 편집 순서에 이르기까지 번역 외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번역문 자체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때문에 마오둔이 아무리 《소설월보》의 개혁 취지에서 직역(直譯)을 강조하였다고 해도, 번역문은 명백히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 실린 27편의 번역문은 이미 외국문학이 아니라, 《소설월보》 편집진의 발행 취지 아래 선별된, 의미 있는 글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 민족의 문학은 그 민족성의 표현이다. …… 한 민족의 진정한 내재적 정신은 그 민족의 문학 작품 안에서 찾을 수 있다. …… 모든 민족 정신의 정화는 모두 귀중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물로 여겨져야 한다.¹⁴⁾

위 인용문은 <전언>에서 “왜 피억압 민족문학을 연구해야 하는가(爲什麼要研究被損害民族的文學)”라는 소제목 아래 쓰인 글이다. 여기에서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의 발행 취지를 읽어 볼 수 있다. 위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민족”이다. 또한 ‘민족’과 ‘민족문학’이라는 단어는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키워드이다. 관념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사상¹⁵⁾이라는 점을 참고한다면, ‘민족’·‘민족문학’이라는 키워드

13) 마오둔은 순수하게 문학의 편집과 비평 활동만을 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사명은 구체적인 정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신분은 그가 문학의 계몽적 의의를 강조할 때 문학의 정치적 경향성과 이성적 요소에 더욱 편향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사화(陳思和), 한국외대 중국현대문학연구회 옮김, 《20세기 중국문학의 이해》, 청년사, 1995, 75쪽.

14) 一民族的文學是他民族性的表現。…… 一民族之真正的內在的精神，從他的文學作品裏就看得出。…… 一切民族的精神的結晶都應該視同珍寶，視爲人類全體共有的珍寶！茅盾，〈引言〉，《小說月報》第12卷 第10號，1921，2쪽.

15) 본고에서는 진관타오(金觀濤)와 리우칭핑(劉清峰)이 정의한 관념의 개념을 따른다. 그들이 말하는 관념이란 사람이 어떤 하나의(혹은 몇 개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사상이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관념은 키워드 혹은 키워드를 포함하는 구문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관념을 통해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사유를 전개하고 대화하고 텍스트를 쓰며, 아울러 타인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사회화하고 공인된 보편적 의미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복잡한 언설과 사상체계를 세워간다. 진관타오·리우칭핑, 양일모·송인

를 통해서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가 실현시키려 했던 관념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성격의 <피억압 민족문학 배경의 축소 被損害民族的文學背景的縮圖>라는 글에서 민족문학의 특질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1. 민족의 분류(민족에게 유전되는 특성), 2. 압박으로 인해 생겨난 특이점, 3. 처해있는 특별한 환경(자연 환경 및 사회적 인 영향)”¹⁶⁾이 그것이다. 본 특집호에는 번역물을 포함한 창작 논문 거의 대부분이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2와 3의 항목이 한 민족의 문학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는 억압을 받고 있는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민족만의 문학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극적인 서술 장치의 역할을 했다. 즉, 다른 나라의 문학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회·역사적 배경을 타 민족문학 이해의 지평으로 삼으며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을 문학 외적인 부분에서 정의내린 것이다. <핀란드의 문학 芬蘭的文學>(원제: The literature of Finland, 1904)은 마오둔이 번역한 글로, 핀란드의 현대 문학가 6명의 문학을 소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글 역시 글의 서두를 역사·정치적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후에 소개할 6명의 문학가들의 작품을 같은 범주 안에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핀란드의 문학>의 서두이다.

핀란드인은 미래의 희망이 문학과 종교에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만이 오직 핀란드인의 독립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1901년 봄, 핀란드 문학은 돌연 정치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¹⁷⁾

채·한지은·강중기·이상돈 옮김, 《관념사란 무엇인가 - 1. 이론과 방법》, 푸른역사, 2010, 37쪽.

- 16) 1. 關於何人種(民族遺傳的特性), 2. 因被損害而起的特別性, 3. 所處的特別環境(自然的與社會的影響) <被損害民族的文學背景的縮圖>, 《小說月報》第12卷 第10號, 1921, 2쪽.
 17) 芬蘭人常說他們將來的希望在文學與宗教, 因為惟有由此二者, 芬蘭人乃能保有獨立的民族性. 恐怕就因為了這個緣故, 一九〇一年春芬蘭文學突然的有和政治一般重要的情勢. Hermione Ramsden, 沈雁冰 옮김, <芬蘭的文學>, 《小說月報》第12卷 第10號, 1921, 43쪽.

핀란드 문학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할 정도의 중요성을 띠는 데는 그것이 핀란드의 “독립적인 민족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 환경 아래에서, 다른 제반 요소들의 독립적인 민족성이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만큼은 독립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걸 만한 중요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즉, 핀란드 문학의 독립적 민족성을 통해 민족문학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민족문학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핀란드의 문학>은 핀란드가 자국의 언어로 문학에 쓰게 된 배경으로 서술을 이어간다. 12~13세기 스위스의 지배를 받고, 1809년부터 완전히 러시아에 속하게 된 핀란드는 원래 핀란드어 대신 스웨덴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핀란드어는 하급 계층에서 쓰던 언어였다. 하지만 1833년 「칼레발라 Kalevala」라는 장편 서사시가 핀란드어로 출판된 것을 계기로, 핀란드 언어로 핀란드 문학을 써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핀란드 문학회(The Finnish Literary Society)’가 생겨나고 진보적인 청년들이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치계까지 들어가 운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보수적 완고파가 존재했고, 여전히 스웨덴어로 문학작품을 써야 한다는 작가들이 있었다. <핀란드의 문학>에는 스웨덴어를 쓰는 3명의 현대작가와 핀란드어를 쓰는 3명의 현대작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진정한 핀란드 문학을 찾기 위해서”는 후자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핀란드 민족의 중요한 민족성을 상상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¹⁸⁾

이와 같은 사고는 중국의 백화문 운동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4의 열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은 꾸준히 백화문 창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20년에는 문교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문언문을 폐지하는 법을 제정하며 백화문의 승리로 기우는 듯 했으나 여전히 문언

18) Hermione Ramsden, 沈雁冰 옮김, <芬蘭的文學>, 《小說月報》 第12卷 第10號, 1921, 52쪽 참고.

문의 자리는 공고했다. 《소설월보》 역시 마오둔이 주편을 잡고 개혁을 단행했던 1921년에 와서야 전면 백화문으로 잡지를 발간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백화문을 통해 문학을 쓰고, 문학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자는 구호에 부족함이 많았다. <핀란드의 문학>에 드러난 자국의 언어로 된 민족문학의 필요성은 결국 당시 중국의 사회 상황에 견주어볼 만한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 실린 마오둔의 창작 논문 <신유대 문학 개론 新猶太文學概論>¹⁹⁾이라는 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신유대 문학 개론>은 19세기 말엽부터 발흥한 유대민족문학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유대민족은 원래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지만 19세기 말엽에 들어, 유대 ‘문자혁명’이 발발하면서 유대민족의 구어(口語)로 문학을 창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언어(舊言語)인 히브리어를 버릴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존재했다. 마오둔은 문자혁명에 찬성했던 페레즈(Perez)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구어(口語)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읽힐 생각이라면, 배우고 나서 글을 읽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그들은 히브리어만을 사용해서 창작할 것이다. 혹은 어느 종류의 언어를 사용해서 창작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질박하고,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고자 한다면, “구어”를 써서 작품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⁰⁾

마오둔이 번역한 위 인용문의 내용은 그가 정의한 신문학의 세 가지 기본요소와 흡사하다.

19) 이 글은 총 7편의 번역 논문 가운데 여섯 번째에 배치됨으로써 마오둔 자신의 주장 역시 해외 학자들의 견해와 동등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효과를 갖는다.
20) 誰想把自己的著作給富人讀，學會了然後去讀，那就只管讓他用希伯來文字來寫作，或用任何種的文字來寫作，都好；但如果他想直刺那些質樸而未受教育的人們的心坎，和他們同笑，和他們同哭，那就非用“口語”來寫作不可了！沈雁冰，〈新猶太文學概論〉，《小說月報》第12卷 第10號，1921，61쪽.

첫째는 보편성이고, 둘째는 인생을 표현하고 지도하는 능력이며, 셋째는 평민을 위한 문학이지 특수한 계급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²¹⁾

보편성을 위해 형식적으로는 반드시 백화문을 주창하고, 평민성을 위해 민중에 접근해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마오둔이 인식한 민족문학의 기본 조건이었다. 즉, 그는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를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그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억압 민족들이 19세기를 지나 20세기를 접어드는 시점에서 발현해 보이고 있던 “현대”는 바로 민족에 대한 인식이었고, 그들의 인식은 “민족문학”으로 드러났다. 마오둔이 번역한 피억압 민족의 잡지 10편 역시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산천 사방은 만개한 꽃들로 가득하고 / 들꽃도 이미 울타리에 피었는데…… / 그런데, 아, 나의 조국이여 / 너도 금방 다시 새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겠는가?²²⁾

바람아, 나의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불거라 / 그곳에 귀여운 여인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이란다 / …… // 그런데, 바람아, 만약 그녀가 이미 나를 잊었다면, / 만약 그녀에게 이미 다른 연인이 생겼다면…… / 너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흩어지거라. / 내가 있는 이 망명지로 다시 돌아오지 말거라²³⁾

비록 중국의 독자들이 위 시를 쓴 아르메니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열강의 침입 등으로 자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상처를 받

21) 沈雁冰, <新舊文學評議的評議>, 《小說月報》 第11卷 第1號; 진사화(陳思和), 앞의 책, 76쪽 재인용.

22) 山的四周圍都蓋滿了花蕾 / 而且野花又已開在籬笆上 …… / 但是, 咳, 我的老祖國呀, / 你也能立刻再開新花麼? 伊薩訶庚(아르메니아), 沈雁冰 옮김, <無題>, 《小說月報》 第12卷 第10號, 1921, 99쪽.

23) 風呵, 吹到我的烏克蘭去呵! / 因為我遺下一個可愛的女郎在那邊呵 / …… // 但是, 風呵, 如果她已經忘了我, / 如果她已經別又戀人了…… / 你就在烏克蘭消散了吧 / 不要回到我這亡命的地方了! 洛頓斯奇(우크라이나), 沈雁冰 옮김, <亡命者之歌>, 《小說月報》 第12卷 第10號, 1921, 99-100쪽.

은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를 상기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는 독자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민족'과 '민족문학'을 내보여 주고 있었다. 즉, 그것은 발행 자체가 '민족' 및 '민족문학'을 호명하고 깨워 내는 데 있었다.

3. '현대' 인식과 민족·민족문학의 호명

그렇다면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는 왜 '민족'과 '민족문학'을 호명한 것일까.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와 '민족'·'민족문학'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호라고 할 수 있는 《소설월보》 제12권 1호에 실린 <문학과 사람의 관계 및 예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존재하는 문학가의 신분에 대한 오인 文學和人的關係及中國古來對於文學者身分的誤認>에 쓰인 “현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영국 등)은 한 번도 문학을 성현의 유성기로 삼은 적이 없으며, ‘문이재도(文以載道)’나 ‘목적이 있어 창작하는 것(有爲而作)’을 알지 못했다. 반면 그들은 ‘개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 국가, 민중을 발견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문학이 현재의 단계에 진화할 수 있었다. 문학의 진화가 보여준 단계는 아래와 같다.

개인적(고대) — 제왕·귀족적(중세) — 민중적(현대)

앞에 있는 두 단계는 우리와 같이 그들 역시 이미 겪고 지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향해가는 시기에 있다.²⁴⁾

24) 他們不會把文學擔負做聖賢的留聲機，不知道‘文以載道’有爲而作，他們卻發現了一件東西叫做‘個性’，次第又發現了社會，國家，和民衆，所以他們的文學進化到了現在的階段。文學進化已見的階段是：

個人的(太古) — 帝王貴閥的(中世) — 民衆的(現代)

這上兩個階段，他們都會經過，和我們一樣，我們現在是從第二個段到第三個段的時期。沈雁冰，〈文學和人的關係及中國古來對於文學者身分的誤認〉，《小說月報》第12卷 第1號，1921，9쪽.

마오둔에게 있어 ‘현대’는 진화의 종착지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시대는 진화하며, 구획할 수 있는 단위의 단계였다. 비록 중국 문학에 있어 ‘현대’가 아직은 미래형이었지만, 그는 부단히 중국 문학이 ‘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개성을 발견”하고 “사회, 국가, 민중”을 발견하여 문학이 “민중적”으로 변모할 때, 중국의 문학은 ‘현대’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현대’는 획득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였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가 발간되던 1921년은 ‘현대’를 세계적 범주에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에릭 홉스봄은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던 1914년을 20세기를 이끈 기점으로 보았지만,²⁵⁾ 세계대전을 관망하던 쪽에 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듬해인 1919년이야말로 20세기의 새로운 원년이었다.²⁶⁾ 중국 내에 생성된 전후 담론은 단순히 세계대전을 동맹국과 연합국의 전쟁이 아니라 모종의 가치 및 문명 사이의 대결로 인식됐다. 세계대전으로 드러난 서구 문명의 야만성과 파괴성이 전쟁과 함께 종식되고, 새로운 ‘현대’에는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인식 역시 생겨났다. 즉, 전전(戰前)의 근대 역사는 서구 중심적인 불평등 문명이 지배적이었던 전후는 동서양 문명의 조화가 이끄는 새로운 인류 문명을 약속하고, 따라서 동양 문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자기 문명에 대한 자각을 통해 세계

25) 에릭 홉스봄, 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까치글방, 1997, <제1장 총력전의 시대> 참고.

26) 《신청년》에 실린 ‘세계대전’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는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16년,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고 유럽전쟁이 끝나던 1918년, 5·4운동 이후인 1920년, 중국공산당이 창립되었던 1923년, 총 4번에 걸쳐 고점에 도달했다. 1916년 세계대전에 대한 서술과 보도는 서양 열강 세력 균형이 파괴되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는 연합국이 명확하게 정의의 편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1920년이 되자 이전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유럽의 야수성에 크게 실망하는 어조로 변하게 되고, 1923년이 되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으로 유럽전쟁을 바라보고 경제 결정론과 계급 투쟁의 관점으로 세계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것이 제국주의 사이의 사악한 전쟁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세계 대전에 대한 서술의 변화는 《신청년》이라는 잡지의 성격 아래에서 해석해야겠다. 하지만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전후에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연합국이 중국에 보인 태도는 실망스러웠고 1920년이 되었을 때, 당시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던 서구 세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세계에 대한 이해에 큰 변화가 가해졌음을 간파할 수 없다. 진관타오·리우칭평, 앞의 책, 212-214쪽 참고.

문명의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를 구성하는 한 축이자 새로운 문명을 선도할 주체라는 자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²⁷⁾

하지만 중국은 신해혁명 이래로 이어져온, 근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과제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문명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세계의 시간 속으로 중국 역시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과제까지 합쳐졌다. 아직 겪어 보지 못한 '현대'를 기획하기 위해서 문명주체로서의 자의식은 '민족'과 '민족문학'으로 발현되었다.

문학가가 지닌 사명이란 국가의 범주에서 말하자면, 자국의 국민 문학·민족의 문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계의 범주에서 말하자면, 세계의 문학을 발전하여 연합하는 것이다.²⁸⁾

문학가는 민족적이며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말에서 '민족적=세계적'이라는 등가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이 중국 지식인들이 세계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적=현대'라고도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서 민족문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자국의 언어로 문학을 창작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중국의 백화문 운동과도 연결되었는데, 이것은 신문학 운동 초기에 주창하던 백화문 운동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서 주장한 언문일치의 백화문 운동은 타 국가와 민족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지체되었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창출이라는 조건이 부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²⁹⁾ 결국,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가 '민족'과 '민족문학'을 호명한 데에는 1920년을 전후하여 새로이 형성된 '현대'에 진입하려는

27) 차태근, <5·4운동 시기 문명 전환론과 사회주의>, 《中國現代文學》 第53號, 2010, 34-36쪽 참고.

28) 文學家負荷的使命, 就他本國而言, 便是發展本國的國民文學, 民族的文學, 就世界而言, 便是要聯合促進世界的文學. 沈雁冰, <文學和人的關係及中國古來對於文學者身分的誤認>, 《小說月報》 第12卷 第1號, 1921, 10쪽.

29) 차태근, 위의 글, 31쪽.

의도가 바탕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중국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³⁰⁾ 중국에서 ‘국가’는 ‘천하’와 동일한 의미 선상에서 사용되었다. 유학은 ‘국(國)’을 ‘가(家)’와 동일한 구조의 확대로 보고, 국을 가와 마찬가지로 유교윤리의 담지체가 되게 하였다. 즉, 유학의 충효 동형 구조 사회조직 원칙 하에서, 개개의 종족(家)을 통합하여 황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일통 제국이 건립되면서 천하와 국가는 유교 윤리를 실현하는 구역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때 외이(外夷)는 교화·방비·정복의 대상이었다. 천하의 다스림 이외의 권역에 있는 종족은 유교적 수준이 낮은, 하찮은 오랑캐일 따름이었다.³¹⁾ 천하가 아니면 오랑캐로 나뉘던 화하중심주의의 천하관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에 ‘민족’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부터 1880년대까지 서양이 무력과 민족국가 체제 하의 국제조약 체계로 중화제국을 대하면서 부터였다. 이때 중국의 전통적 천하질서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받아들여야 했다. 량치차오(梁啓超) 등은 민족주의를 국가의 현대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고 인식하였다.³²⁾ 근대로 접어들어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빈번하게 사용된 배경에는 세계 강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진화의 과정에 적합하도록 변모하여, 다른 민족 국가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자면 《소설월보》의 편집진들이 내세웠던

30) ‘민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르게 사용된 때는 1837년이라고 추정된다. 愛漢者가 <約書亞降迦南國>이라는 글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육로로 가는 듯이 요단강을 건넜다. 막 건너는 때에 하느님 아버지가 주재하시 물이 말라 건조하게 하시니 강과 바다도 그러하였다”라고 쓴 것이 그것이다. 이 시기 ‘민족’을 포함한 여타의 예문을 보면 해당 단어는 대부분 외국을 가리켰고 가끔 중국의 여러 민족을 가리키기도 했다. 진관타오·리우칭핑, 양일모·송인재·한지은·강중기·이상돈 옮김, 《관념사란 무엇인가 -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2010, 248쪽.

31) 진관타오·리우칭핑, 위의 책, 226-232쪽 참고.

32) “16세기 이래로 유럽이 발달한 이유와 세계가 진보한 이유는 모두 민족주의가 널리 퍼진 충격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각지에서 종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종교가 같고 습속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동포처럼 보고 독립하여 자치하기를 힘써 완비된 정부를 조직하여 공익을 도모하고 다른 종족을 막는 것이다.” 梁啓超, <論民族競爭之大勢>(1902); 진관타오·리우칭핑, 위의 책, 푸른역사, 2010, 252쪽 재인용.

민족국가는 세계 민족 중 단연 최고가 되자는 량치차오 식의 주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민족국가는 세계 속에 다른 민족들과 균등하게 '현대'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였다. 세계대전과 파리강화회의 등 민족국가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열강의 패권을 확인했던 중국은 더이상 그들을 미래의 롤 모델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을 답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소설월보》가 호명했던 '민족'은 서로 모순되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가치는 차별과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만국이 차별 없는, 평등한 대동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계를 없애려는 철저한 세계주의이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억압을 받은 민족의 정신과 문학 역시도 세계의 범주에서 모두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세계주의 범주에 속하는 사상이다. 서구의 선진 문학만이 중국의 현대문학의 전범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면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는 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가치는 생존경쟁을 하며, 각국이 부강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학과 사회가 '현대'의 대열에 아직 합류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여전히 현대의 선진 세계에 '진입'해야 한다는 경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민족국가는 '현대'에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민족국가는 낙오된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세계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명제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가치는 오히려 그들이 지양했던, 제국주의적 왕조국가의 민족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의 서두에서 "본 호에서는 총 8개 민족의 문학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8개 민족의 인종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언어문학을 가지고 있다."³³⁾라며, 인종의 분류와 언어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간 것은 종족과 언어를 중요한 요소로 여긴 유럽의 종족언어 민족주의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또한 "피억압 민족의

33) 本號內共介紹八個民族的文學，這八個民族照人種歸類可得五種，但他們各有他們自己的語言文學。茅盾，〈引言〉，《小說月報》第12卷 第10號，1921，3쪽.

문학” 특별호에서 주요하게 언급한 체코·핀란드·우크라이나는 19세기에 들어 언어계보학·문헌학·지방어 사전·고전의 지방어 번역 출판을 시작으로 그동안 잠들어 있던 민족주의를 깨우려는 종족언어 민족주의를 실현한 유럽의 나라들이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발달한 종족언어 민족주의는 당시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고 있던 왕조국가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모방되었다.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소유한 민족 공동체가 공동체의 규범이 되어가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화전통을 타 국가에 이식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다.³⁴⁾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가 호명했던 ‘민족’은 세계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국가 민족주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상호 모순된 가치 이념의 장력 가운데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현대’ 기획과 동원된 민족문학

일부에서는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의 발행 이유를 두고, “중국과 이러한 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기타 구라파 약소국)가 피억압 민족으로 그들의 투쟁경험과 용기가 틀림없이 중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³⁵⁾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용기를 얻을 요량이었다면, 그들의 투쟁 정신을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소설 및 시를 중심으로 특별호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소설이나 시보다 앞부분에 배치

34) 동일 언어 공동체라는 종족언어 민족주의는 왕조들에게 딜레마를 준다. 왕조 안에는 다양한 언어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민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전통을 강요하는 동화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시도를 앤더슨은 “제국이라는 거대한 몸체 위에 민족이라는 짧고 꼭 끼는 가죽을 펼쳐 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제국주의적 왕조국가가 민족국가로 변신을 하는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7, 270-271쪽 참고.

35) 조대호, 《郭沫若詩와 中國革命精神》,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2, 31쪽.

되었던 7편의 민족문학 분석 논문이었다. 이 논문들은 각 민족의 민족 언어를 비롯하여, 민족 작가·민족문학의 역사적 배경 및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사실주의 기법과 같은 문학 창작 방식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서술되었다. 민족문학에 관한 심도 있는 논문을 권두부터 배치했다는 것은, 이 특별호가 염두에 둔 독자가 마오둔이 주장했던 “평민을 위한 문학”의 사회 기층민들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³⁶⁾

특별호에 실린 논문의 구체성을 읽어내는, ‘제대로’ 된 독서능력을 지닌 독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민족문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은 ‘민족문학’을 창작하게 될 작가들에게 전하는 말로, 특별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독자층은 더욱 한정적이었다. 실제로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서 편집과 번역을 담당했던 주요 인물은 마오둔·루쉰·저우쥘런 등이었는데, 이들은 편집인·번역인이자 동시에 작가였고, 또한 동시에 독자였다. 즉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의 독자는 이미 작가군단으로서 번역된 피억압 민족의 문학사론을 보면서 중국의 민족문학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는 일차적으로 타국의 ‘민족’·‘민족문학’ 사상을 중국 작가들에게 ‘번역·이식’하였고, 이차적으로 잡지로 인하여 ‘매개’된 중국의 작가들이 중국만의 민족문학을 만들어 국민의 민족성을 각성시킬 것을 구상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논리는 자국의 전통이나 모국어에 대한 애착과 함께 전개되는 것이 관례이지만 중국의 그것은 자국의 전통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부정에서 출발하였다.³⁷⁾ 즉,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를 구성하고 있는 피억압 민족 국가와 같은 맥락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려면 독자로 하여금 중국인 특유의 민족됨을 느끼고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전통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반전통을 통한 ‘현대’를 기획하고자 했던 5·4 지식인들에 의한 민족주의의 구상이 당시에

36) 상무인서관의 유일한 문학 정간물인 《소설월보》가 애초 겨냥한 대상은 독학자들이었다. 리어우관, 앞의 책, 106쪽.

37) 정진배, 《중국 현대 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268쪽.

현실적인 효력을 지니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소설월보》의 편집진이 선택한 것은 ‘억압 관계’라는 특수한 렌즈였다. 상황적으로 중국을 피억압 민족 국가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며 외부로부터의 힘과 구별되는 민족 내부의 고유한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적 장치 역시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야 대중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월보》가 호명했던 민족과 민족문학에 대한 개념은 세계주의와 국가 민족주의의 경계를 애매하게 넘나들며 명확히 그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에서 호출한 민족 개념은 지식인들이 자국의 세계적 위상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들이 호명했던 민족과 민족문학은 그 의미가 어떻든 간에 ‘현대’ 기획에 힘을 싣기 위해 동원해야 했던 요소였다. 켈러는 “민족주의는 민족들이 자의식에 눈뜬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는 민족이 없는 곳에서 민족을 발명했다”고 했다. 문명사적 변화를 맞고 있는 ‘현대’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위해서, 중국에는 ‘현대’ 안에서도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힘이 있고 영구불멸을 약속하는 대안적 공동체인 ‘민족’의 구상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소설월보》의 “피억압 민족의 문학” 특별호는 그들이 껴어보지 못한 ‘현대’를 기획하기 위하여 ‘민족’을 호출하고, 민족문학을 구성하고 있었다.

<參考文獻>

《小說月報》 第12卷 第1號, 1921.

《小說月報》 第12卷 第2號, 1921.

《小說月報》 第12卷 第10號, 1921.

《小說月報》 第12卷 第12號, 1921.

리디아 리우, 민정기 옮김, 《언어황단적 실천》, 소면출판, 2005.

- 리어우판, 장동천 외 옮김, 《상하이 모던》,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7.
- 書目文獻出版社 편, 《小說月報 索引 1921-1931》,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4.
- 에릭 홉스봄, 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까치글방, 1997.
- 王暉, 張頤武 주편, <我們如何成爲現代的>, 《現代性中國》,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05.
- 자크 데리다, 박성창 옮김, 《입장들》, 솔, 1992.
- 정진배, 《중국 현대 문학과 현대성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1.
- 조대호, 《郭沫若詩와 中國革命精神》,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2.
- 진관타오·리우칭핑, 양일모·송인재·한지은·강중기·이상돈 옮김, 《관념사란 무엇인가 - 1. 이론과 방법》, 푸른역사, 2010.
- 진관타오·리우칭핑, 양일모·송인재·한지은·강중기·이상돈 옮김, 《관념사란 무엇인가 - 2. 관념의 변천과 용이》, 푸른역사, 2010.
- 진사화(陳思和), 한국외대 중국현대문학연구회 옮김, 《20세기 중국문학의 이해》, 청년사, 1995.
- 高志强, 《《小說月報》(1921-1931)翻譯文學初探》, 北京語言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7.
- 高志强, <現代性張力結構與多重對話格局>, 《天津社會科學》 6期, 2010.
- 李輝, <在商業和文化之間-論20年代《小說月報》的改革>, 《河南大學學報》 第45卷 第3期, 2005.
- 王晴飛, <商務印書館與新文化運動>,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第4期, 2010.
- 張娜, <商務印書館與《小說月報》>, 《開封大學學報》 第23卷 第3期, 2009.
- 伍曉輝, <茅盾與《小說月報》的革新>, 《湖南科技學院學報》 第28卷 第3期, 2007.
- 李保高, <五四時期商務印書館改革中編輯的角色>, 《中國語文學論集》 第70卷, 2011.
- 김수연, <《新小說》: 매체, 소설과 정치>, 《中國語文論叢》 第53輯, 2012.
- 심태식, <Mao Dun's Literary Advocacy in the Early 1920s>, 《中國學論叢》 제27집, 2010.
- 차태근, <5·4운동 시기 문명 전환론과 사회주의>, 《中國現代文學》 第53號, 2010.

< Abstract >

In the 1920's, editors of <<The Short Story Magazine(小說月報)>> published four times of special issues. They contained intention that are 'Modern' or 'Modern Literature' such as Marxism, naturalism, neo-Romanticism in the special issues. Especially "Literature of the oppressed people(被損害民族的文學)"(Vol. 12 Issue 10) is worthy of attention. It shows that the editors of <<The Short Story Magazine>> considered not only symbol of world leading 'Modern Literature', European literature, but also Literature of the oppressed people that were minor position on the 'modern literature' at that time. In other words, the editors of <<The Short Story Magazine>> considered that Literature of the oppressed people also have had 'modern idea'.

"Literature of the oppressed people" Specially issued contained many research papers about national language, national writer and national literature. In the final analysis, the editors have had to make plans for making chinese own national literature and rousing the conscience of the whole nation.

Key words: The Short Story Magazine, Literature of the oppressed people, national literature, Maodun, nationalis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1. 31.	2017. 03. 02.	2017. 03. 13.	2017. 03. 19.	2017. 03. 31.